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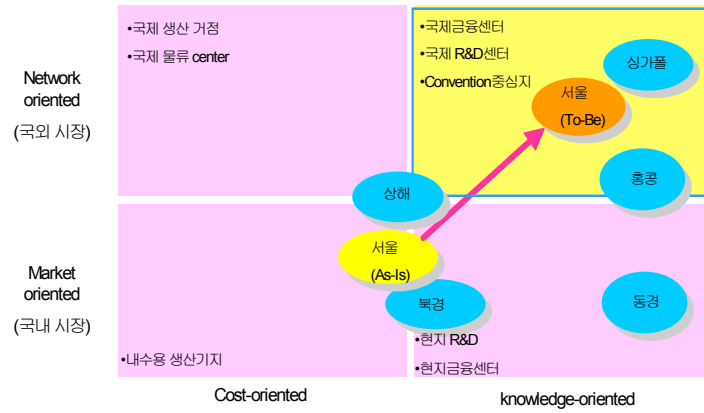
동북아 중심도시로서의 서울의 경쟁력

- 서울, 상해, 북경, 홍콩, 동경, 싱가포르의 비교

- 최근 중국경제의 급성장으로 동북아의 경제규모는 전세계 경제규모의 약 20%까지 증가하였으며, 향후 20년 후에는 전세계 경제규모의 30%, 전세계 물동량의 40%를 동북아에서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음
- 바야흐로 한국, 중국, 일본이 주도하는 동북아시아가 도래하고 있으며, 기업, 인력, 자원, 금융이 활발하게 이동하는 흐름의 공간에서 다국적기업의 본사, 고차서비스기능, 교통·통신, 정치·문화의 결절지가 되기 위한 치열한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음
- 따라서 서울의 국제경쟁력을 보다 정확히 가늠하고 미래지향적 발전목표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는 노무라종합연구소와 공동으로 동북아 6개 도시에 대한 경쟁력 평가를 시도함. 이번 조사는 R&D, 금융, 물류, 컨벤션 등 4개 분야, 77개 지표를 대상으로 2003년 5월부터 7월까지 시행됨

서울의 지향점은 어디인가?

- 국제도시로서의 현재의 서울은, 한국 국내시장만을 대상으로 삼은 세일즈 거점으로서의 성격이 강하지만, 국내시장이 충분히 크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은 시장보다는 네트워크 중심의 도시를 지향할 필요가 있음. 상해와 북경과 같은 Cost Performance가 탁월한 경쟁도시가 옆에 있다는 점에서, 지식 중심 산업을 중점적으로 추구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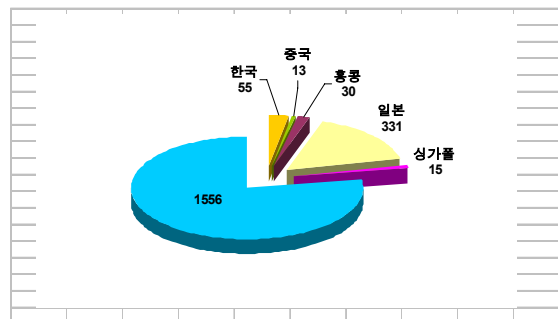


[그림 1] 아시아 6개 도시의 국제도시로서의 Positioning Map (개념도)

서울의 시장환경 수준은?

■ 자국기업의 국제경쟁력

- Forbes의 Global 2000 List에 포함된 기업들의 국가별 분포를 보면, 한국 기업은 모두 55개로 일본을 제외하고는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많음. 서울은 경쟁력있는 한국 기업들의 본거지이지만, 서울이 국제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경쟁력있는 국내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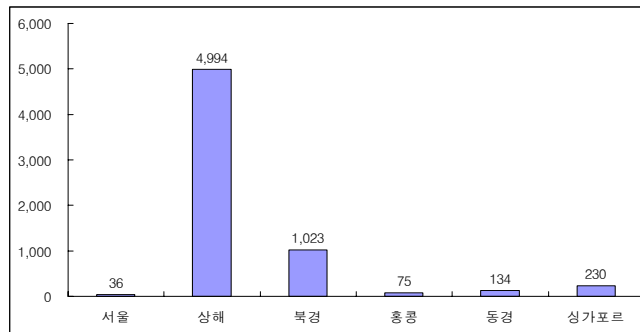


출처 : www.forbes.com

[그림 2] 세계 2000대 기업 중 자국기업의 수 (2003)

■ 수도권 내 외국기업 생산기지의 수

- 생산기지는 다국적기업의 R&D센터 및 물류센터, RHQ를 유치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음
- 서울의 경우 수도권의 외자계 기업의 공장 수가 경쟁도시들에 비해 극히 적은데, 삼성, LG와 같은 국내 대기업 공장을 유인요소로 삼아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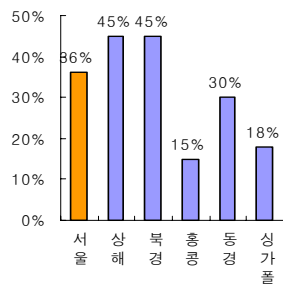
출처 : 서울 - 수도권(경기도)에 들어와 있는 외투기업공장 수, www.invest.go.kr
 상해 - enterprises with investment from hongkong, macao and taiwan+foreign-invested enterprises, 상해대도시권, 상해통계연감
 북경 - foreign funded industrial enterprises, 북경대도시권, 북경통계연감
 홍콩 - 홍콩 내 manufacturing 기업 수, <http://www.investhk.gov.hk>
 동경 - 동경 및 인근 현(사이타마, 치바, 카나가와)의 외국계 공장 수, <http://www.kanto.meti.go.jp>
 싱가포르 - 싱가포르의 공업단지에 진출해 있는 외자계공장 및 jv공장, <http://www.jtc.gov.sg>

[그림 3] 도시인근 외자계 기업의 공장의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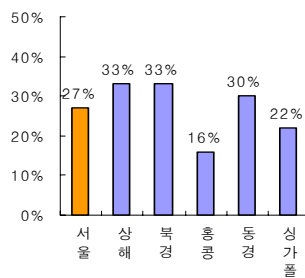
■ 법인세 / 소득세 / 부가가치세

- 세금은 분야를 막론하고 외국계 기업이 진출을 결정할 때 가장 중시하는 요건 중 하나이지만, 경쟁도시들과 비교해서 한국의 경쟁력은 약한 편임
- 법인세의 경우, 서울은 27%로 중국이나 일본보다는 세율이 낮지만, 홍콩(16%), 싱가포르(22%)과 같은 선두그룹에 비해서는 경쟁력이 많이 떨어짐. 부가가치세 역시, 서울은 10%로, 홍콩(0%), 싱가포르(3%)뿐 아니라 동경(5%)보다도 높은 실정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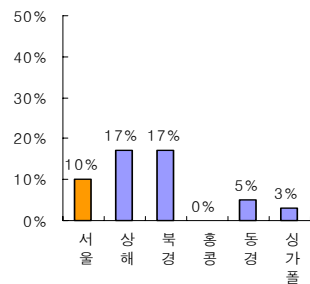
- 외국인을 데리고 올 때 기업이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할 소득세는, 소득수준에 따라 다소 달라지기는 하지만, 연봉 1억원을 기준으로 할 경우 홍콩(15%)이나 싱가포르(18%)은 물론, 일본(30%)보다도 서울의 세율이 높음
- 또한 법인세와 소득세 모두 체계가 복잡해 경쟁 국가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6] 소득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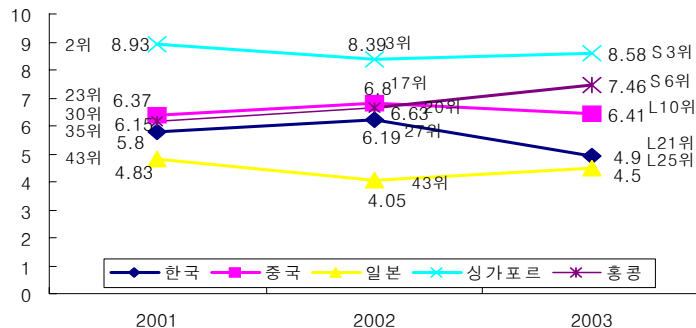
[그림 6] 법인세



[그림 6] 부가가치세

■ 투자 인센티브 : 세금, 자본 및 금융관련 지원, 물리적 지원

- 외자유치를 위한 투자 인센티브 측면에서도, 한국은 일본과 함께 최하위로 평가됨.(IMD, 2003년 평가) 싱가포르와 홍콩의 투자 인센티브가 가장 매력적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세금관련 지표에서 한국보다 크게 뒤지던 중국도 투자 인센티브는 한국보다는 훨씬 상위에 랭크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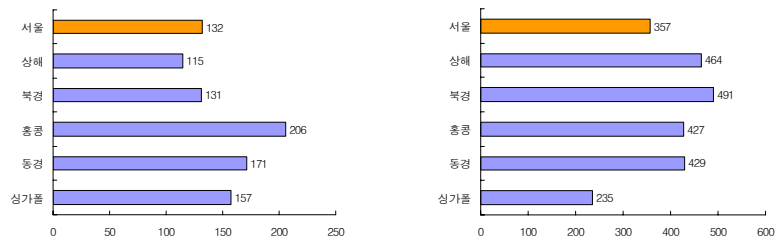


출처 : IMD 세계경쟁력 평가지표 2001-2003년도

[그림 7] 투자 인센티브가 외국인 투자자에게 매력적인 정도

■ 주요 도시 접근성

- 동북아 중심지라는 입지적 호조건에도 불구하고, 항공 연결도시 수에서 서울은 아직 홍콩이나 동경, 싱가포르에 비해 떨어짐. 연결도시 수에 있어서는 홍콩의 경쟁력이 압도적이며, 국내선 편수가 많은 상해-북경을 제외하면 동경과 홍콩의 연결성이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남



출처 : 각 도시의 공항 홈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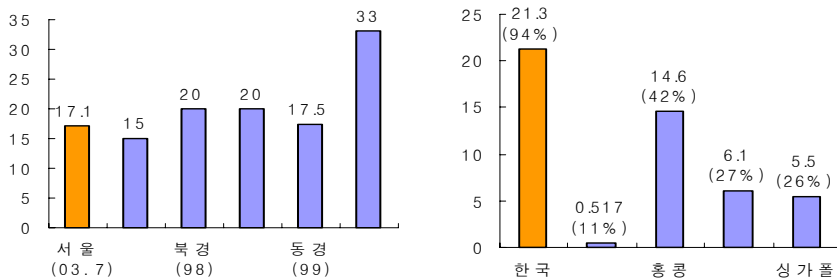
[그림 9] 항공편으로 연결되는 도시 수

[그림 9] 주요 도시행 항공편 수

■ 도로 / 통신 인프라

- 공공시설의 인프라 역시 중요한 요건임

- 차량 평균속도에 있어서는 서울이 경쟁도시에 비해 많이 뒤떨어는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통신, 특히 브로드밴드 인프라에 관해서는 한국이 다른 경쟁국가에 비해 두드러지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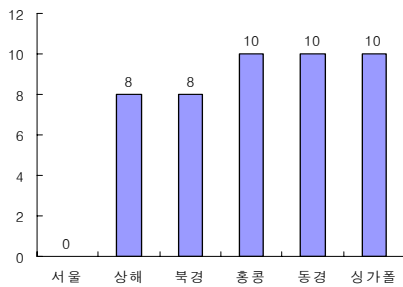


[그림 11] 차량 평균속도(km/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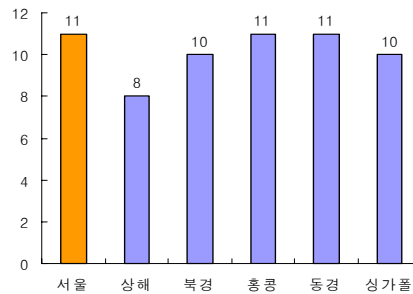
[그림 11] Broadband 가입자(인구 100명당 수, 총인터넷 사용자 중 %, 2002)

■ **대사업자 서비스(법률/회계/컨설팅) 수행하는 다국적기업의 수**

○ 국제 업무중심지가 되기 위해서는 법률, 회계, 컨설팅 등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회사들의 역할이 중요한데, 대표적인 다국적 법률회사 및 컨설팅회사(회계법인 포함)의 도시별 진출현황에서 한국은 법률시장이 개방되어 있지 않아 외국계 로펌의 진출이 전혀 없다는 점이 약점으로 지적됨



* 주요 로펌
clifford chance/ Jones. Day. Reavis & Pogue/ Baker & McKenzie /Skadden. Arps. Slate, Meagher&Florm/ FrechfiedlsBruckhaus Deringer/ Linklaters /Allen& Overy/ Latham&Watkins/ Sidley Austin, Brown &Wood/ white&ca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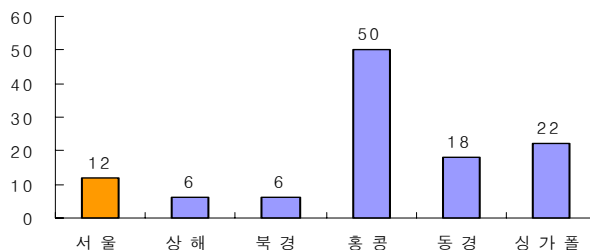
* 주요 컨설팅 업체(회계,경영,시스템 포함)
전략계 : Mckinsey/ BCG/ Bain/ Monitor/Booz Allen Hamilton/A.T. Kearney
회계 및 IT계 : Accenture/ P.W.C/Deloitte/ KPMG/ E&Y/

[그림 12] 주요 대형 로펌의 각도시 진출현황

[그림 13] 주요 컨설팅 업체의 각도시 진출현황

■ **외국인학교의 수**

○ 외국인이 와서 일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 중 하나가 교육환경인데, 서울의 경우 상해나 북경에 비해서는 양호한 편이나, 홍콩, 싱가포르 및 동경에 비해서는 상당히 취약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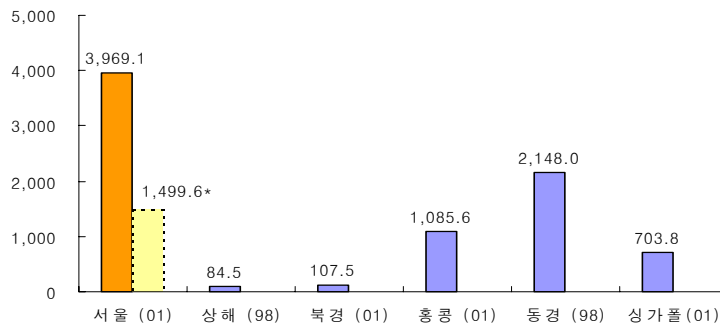


출처 : The Education Profect Asia(TEPA)

[그림 14] International Schools (재단수, 2003)

■ 범죄율

- 경쟁도시들과 비교하여 서울은 인구 대비 범죄건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사기범죄 건수가 다른 도시에 비해 많기 때문으로 추정됨. 상해와 북경이 비교적 안전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사회주의 국가라는 특수한 사정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주 * :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범죄만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도 서울의 인구 10만명 당 범죄건수는 1,499.6으로 높은 수준임

출처 : 서울-서울특별시 지방경찰청, 상해-Shanghai on Internet, 북경-북경통계연감, 홍콩, 싱가포르-Interpol, 동경-동경도 경시청

[그림 15] 인구 10만명 당 범죄건수

■ 대기오염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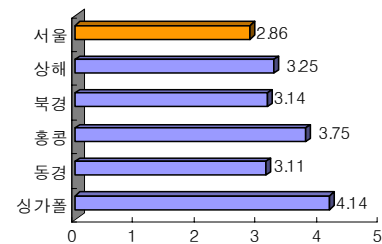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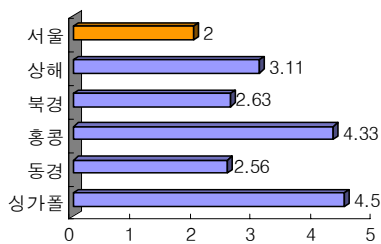
- 대기오염도는 상해와 북경 등 중국 도시들이 특히 심각한 편임. 서울은 중간 정도이지만, 선진국형 대기오염이라고 할 수 있는 이산화질소와 부유입자(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이산화질소 총량규제를 실시하고 있는 동경의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음

[표 1] 대기오염도

	이산화유황	이산화질소	부유입자	기준기시	출처
서울	0.005ppm	0.036ppm	0.071(mg/cu.m)	2001	서울시
상해	0.043(mg/cu.m)	0.063(mg/cu.m)	0.100(mg/cu.m)	2001	상해통계연감
북경	0.064(mg/cu.m)	0.071(mg/cu.m)	0.165(mg/cu.m)		북경통계연감
홍콩	0.018(mg/cu.m)	0.064(mg/cu.m)	0.053(mg/cu.m)	2001	China year book
동경	0.003ppm	0.035ppm	0.029	2002.04	동경도통계연감
싱가폴	0.020ppm	0.030ppm	-	1995	World Development Indicator

■ 외국인과 외국기업에 대한 배타적 태도

- 이미 국제화되어 있는 싱가포르, 홍콩뿐만 아니라, 동경이나 북경과 비교하더라도, 외국인에 대한 태도가 가장 배타적인 것으로 나타나, 향후 국제도시로 성장하는 데 있어 걸림돌이 되고 있음
- 외국기업에 대한 태도 역시 외국인에 대한태도와 비슷한 양상으로, 비교 도시들 가운데 서울이 가장 덜 우호적인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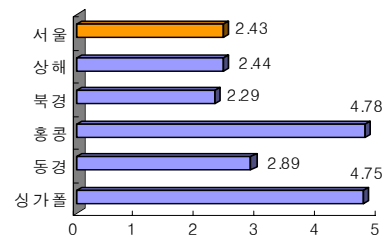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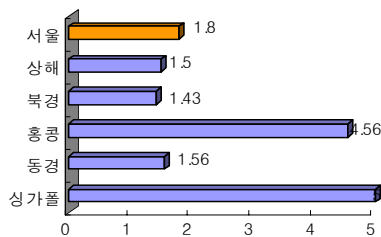
출처 : NRI 내부서베이

[그림 5] 외국인에 대한 배타적 태도 (1:매우 강함, 5:전혀 없음)

[그림 5] 외국기업에 대한 태도 (1:매우 적대적, 5:매우 우호적)

■ 일반행정서비스의 영어사용수준 / 도시기반시설의 외국어표기정도

- 행정서비스 및 도시기반시설의 외국어표기도 아직 외국인이 살기에는 불편한 수준임. 싱가포르와 홍콩은 일반행정서비스, 도시기반시설 모두 국제화가 잘 진전되어 있지만, 서울을 포함한 나머지 네 도시(서울, 상해, 북경, 동경)의 국제화 수준은 낮은 실정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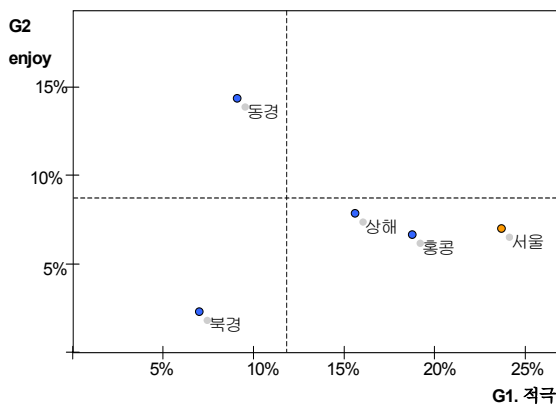
출처 : NRI 내부서베이

[그림 6] 일반행정 서비스의 영어사용수준 (외국인 대상 일반행정서비스의 존재) (1:매우낮음, 5:매우높음)

[그림 6] 도시기반시설의 외국어표기정도 (1:매우낮음, 5:매우높음)

■ 소비자특성

- 하쿠호도에서 전세계 25도시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라이프스타일 특성을 조사한 결과, 서울의 소비자들은 혁신과 자기실현을 지향하는 특성(적극적, 유행민감)이 특히 강한 것으로 조사됨. 질적으로도 한국시장은 일본, 타이완, 홍콩과 함께 소비자의 수준, 제품에 대한 요구레벨이 높은 고급 시장으로 분류되고 있음. 한국은 다품종 소량생산에 적합한 시장구조로서 동남아에 대한 이미지, 아이디어 공급처로서 의미가 큼



G1 적극 type - 여러 가지에 관심을 가지고, 무엇이든 적극적으로 행동. 타인을 따르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주변을 끌어가는 리더 지향도 강하게 나타나는 타입

G2 enjoy type - 유행에 민감, 생활을 즐기는 사람들. 장래보다는 현재를 만끽하려는 타입. 늘 자극을 추구하고, 새로운 상품도 총동적으로 사는 경향이 있음

출처 : 하쿠호도, 전세계 25도시 16000명대상 조사결과를 NRI가 정리
* 점선은 조사 대상자 전체 평균을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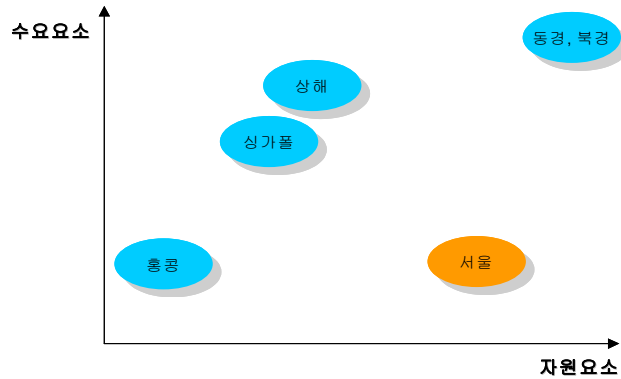
[그림 20] 혁신지향 및 자기실현 지향 타입 소비자의 비율

동북아시아 R&D 중심지는?

■ 각 경쟁요소별 도시경쟁력 평가

- 서울은 동경, 상해, 북경에 비해 R&D센터로서의 역량이 부족함
 - 동경은 하이테크 제품 생산과 국내기업 경쟁력, 자원요소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고, 상해와 북경은 다국적기업의 생산기지 및 외국계 R&D센터로서 탁월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음. 또한 인적자원 및 연구개발비용 측면에서도 동경과 대등한 수준임

- 서울의 경우, 국내기업경쟁력과 하이테크 제품 생산, 특히 등에서 경쟁력을 발휘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주 : R&D 경쟁력 평가 표를 점수화하여 경쟁 도시간 상대적 위치를 표시

[그림 21] 동아시아 지역 각 도시의 R&D센터로서의 경쟁력 ma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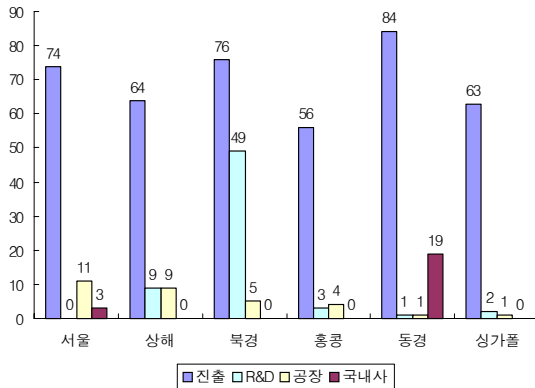
[표 2] R&D 경쟁력 평가

분류		서울	상해	북경	홍콩	동경	싱가폴
수요 요소	국내기업의 경쟁력	△	×	×	△	◎	×
	다국적 기업 생산기지의 입지현황	×	◎	○	×	×	△
	하이테크 제품 생산	△	△	△	×	◎	○
	외국계 R&D센터 입지현황	×	△	◎	△	×	△
자원 요소	인적자원	○	○	◎	×	◎	△
	특히	○	△	△	△	◎	△
	연구개발 비용	○	△	◎	×	○	△

◎ 매우경쟁력이 있음, ○ 어느정도 경쟁력이 있음, △ 보통임, × 경쟁력 없음

■ 외국계 R&D센터의 입지현황

- Fortune 500기업 중 R&D 센터를 갖출 수 있는 업종의 상위 100대 기업의 진출현황을 파악한 결과, R&D 센터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곳은 북경으로, 상위 100대 기업 중 76개 기업이 진출하였고, 이 중 49개 기업이 R&D거점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조사대상 기업 중 서울에 R&D거점이 있는 외국계 기업은 없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22] 외국계 R&D센터의 입지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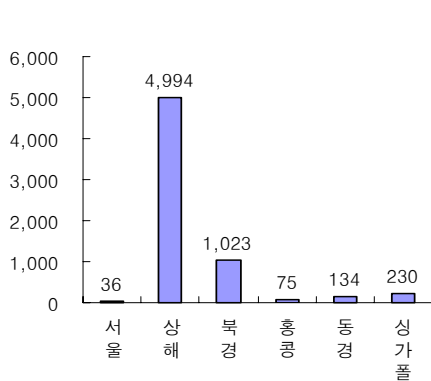
[표 3] 외국계 R&D센터의 입지현황

	서울	상해	북경	홍콩	동경	싱가폴
진출	74	64	76	56	84	63
국내사	3	0	0	0	19	0
공장	11	9	5	4	1	1
R&D	0	9	49	3	1	2

- 참고 : R&D Center 설치업종
- Network & Other Communications Equipment
 - Pharmaceuticals
 - Semiconductors and Other Electronic Component
 - Beverages
 - Aerospace & Defense
 - Household & Personal Products
 - Oil and Gas Equipment, Services
 - Scientific, Photo, Control Equipment
 - Chemicals
 - Motor Vehicles & Parts
 - Industrial & Farm Equipment
 - Food Consumer Products
 - Forest & Paper Products
 - Computer Software
 - Engineering, Construction
 - Electronics, Electrical Equipment
 - Computers, Office Equipment

■ 수도권 내 외국기업 생산기지의 수

○ 생산기지는 다국적기업의 R&D센터를 유치하는 데 중요한 계기를 제공하지만, 서울의 경우 수도권의 외자계기업 공장 수가 경쟁도시들에 비해 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남. 중국의 도시들뿐만 아니라 도시국가인 홍콩, 싱가포르에 비해서도 외국계 생산기지 수가 적는데, 삼성, LG와 같은 국내 대기업 공장을 유인요소로 삼아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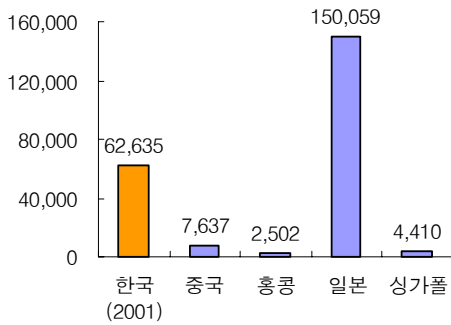


- 출처 :
- 서울 : 수도권(경기도)에 들어와 있는 외투기업공장 수, www.invest.go.kr
 - 상해 : enterprises with investment from hongkong, macao and taiwan +foreign-invested enterprises, 상해대도시권, 상해통계연감
 - 북경 : foreign funded industrial enterprises, 북경대도시권, 북경통계연감
 - 홍콩 : 홍콩 내 manufacturing 기업 수, [http://www.investhk.gov.hk/\(nfsmdsittxkj1oyimrx1ga55\)/keystatic1.aspx?id=147&code=KEYSINVEST](http://www.investhk.gov.hk/(nfsmdsittxkj1oyimrx1ga55)/keystatic1.aspx?id=147&code=KEYSINVEST)
 - 동경 : 동경 및 인근 현 (사이타마, 카나가와, 치바)의 외국계 공장수, <http://www.kanto.meti.go.jp/seisaku/databook/sangyodatae/foreignowned/tokyo.html>
 - 싱가폴 : 싱가포르의 공업단지에 진출해 있는 외자계공장 및 JV공장 <http://www.jtc.gov.sg/Corporate/reports-publications/jtc+official+statistics+2003v1.pd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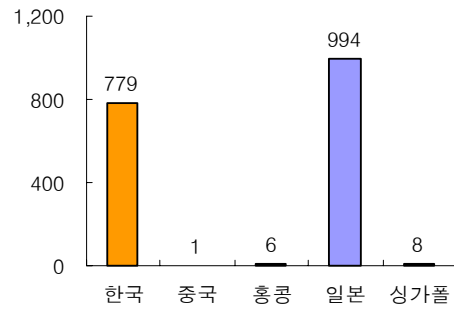
[그림 23] 도시인근 외자계 기업의 공장 수

■ 등록특허건수 / 주민당 특허건수

- 등록 특허건수 및 주민당 특허건수는 아시아지역에서 일본과 함께 타 도시를 압도하고 있음. 이는, 자국 기술주도의 R&D센터를 만드는 데 있어 유리한 고지에 있음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R&D 거점육성전략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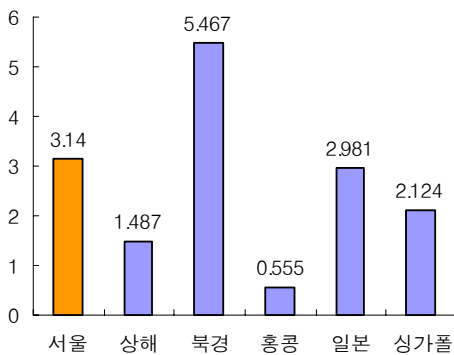
[그림 24] 등록특허건수(19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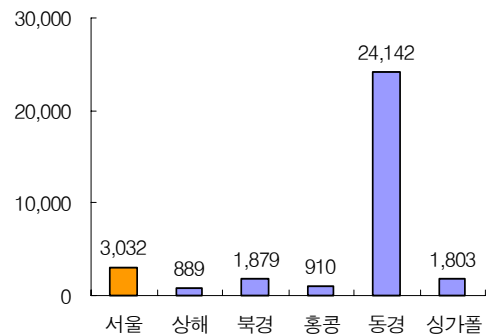
[그림 25] 주민당 특허건수(백만명 당, 1998)

■ GDP(GRDP) 대비 연구개발비

- OECD의 통계에 따르면, GDP 대비 R&D 지출은 한국의 경우 일본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지만, 최근 R&D 거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북경에 비해서는 낮음



[그림 26] R&D에 대한 지출 (% of GDP, 2001)



[그림 27] R&D 비용 (백만 달러, 2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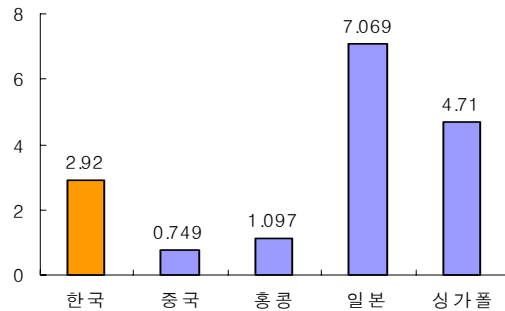
■ 연구원수

- 1999년 기준 주요 경쟁국의 연구자수는 일본이 65만8천명으로 가장 많고, 중국이 53만으로 일본에 버금가는 규모임
- 특히 중국은 박사학위 취득자 중 미국에서 취득한 박사학위자의 수가 경쟁국 중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한국은 연구자 수나 박사학위 취득자 수에 있어서 일본과 중국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표 4] 각국의 연구자수

국가	연구자수 (1999)	박사학위취득자수 (1999)	
		자국	미국
한국	136,337*	2,587**	780
일본	658,909	6,575	152
중국	531,000	6,775	2,378
싱가폴	13,817	907	8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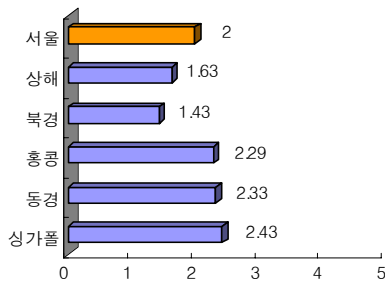
주 * : 2001년 자료, ** : 2002년 자료
 출처 : 일본 경제산업성 기술환경국 기술조사실, 2002 과학기술 연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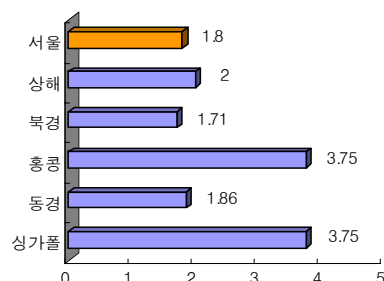
출처 : OECD Main Science and Technology Indicators 2002/2
 [그림 28] Total R&D Personnel Nationwide Per Capita (Full-time work equivalent(FTE) Per 1000 People, 2001)

■ 외국인취업의 용이성

- 서울은 외국인 취업에 있어서도 북경 및 동경과 더불어 최하위권임



주 : 1 매우 불편, 5 매우 용이
 출처 : NRI 내부서베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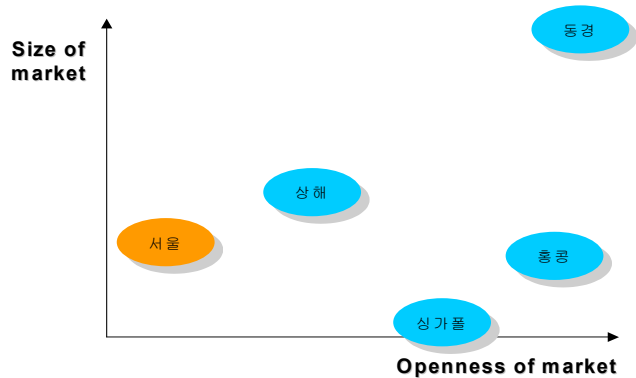


[그림 29] 비즈니스에서 인맥의 중요성 [그림 30] 외국인 취업의 용이성

동북아시아 금융중심지는?

■ 각 경쟁요소별 도시 경쟁력 평가

- Market size에 있어서는 동경이 아시아 타 경쟁도시보다 압도적으로 큰 규모임



[그림 31] 동아시아 지역 각 도시의 금융센터로서의 경쟁력 Ma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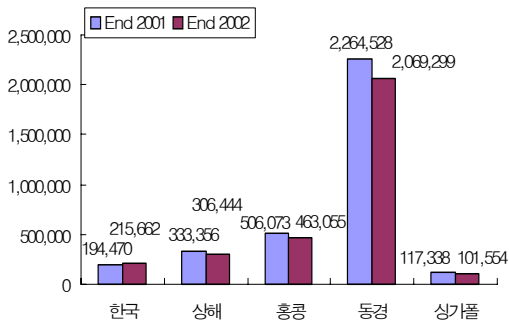
[표 5] R&D 경쟁력 평가

분류		서울	상해	홍콩	동경	싱가폴
Size of market	주식시장 규모	△	△	△	◎	×
	채권발행 규모	△	△	△	◎	×
	개인금융자산 규모	△	△	-	◎	×
	기업여신 규모	△	◎	△	◎	×
Openness of market	다국적 금융기관의 입지	×	△	◎	○	△
	증시에 상장된 외국기업 수	×	×	△	○	◎
	외국인 투자액 규모	△	◎	○	△	△
	외화채권 발행액수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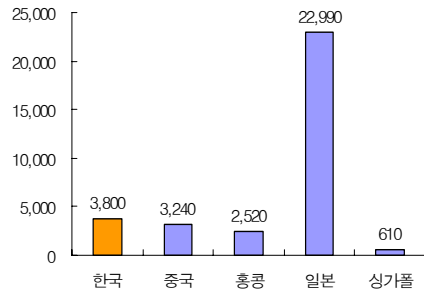
◎ 매우 경쟁력이 있음, ○ 어느정도 경쟁력이 있음, △ 보통임, × 경쟁력 없음

■ 주식 및 채권시장 규모

- 주식 및 채권시장 규모는 동경이 경쟁도시 전체를 합친 것보다 큰 규모임
 - 한국의 증시 규모는 일본의 10분의 1, 중국과 홍콩의 2.5분의 1 수준에 불과하나, 채권시장은 아시아에서 일본 다음가는 규모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음



출처 : World Federation of Exchang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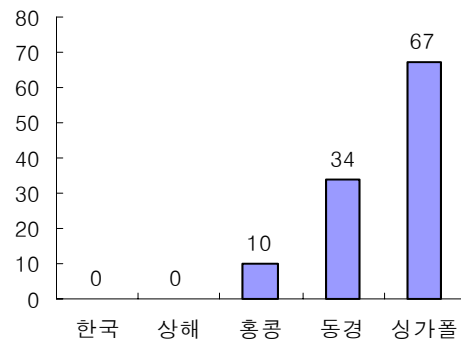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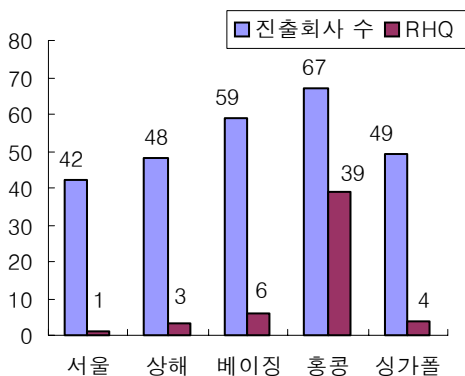


주 : 싱가포르 기준(www.sgs.gov.sg), 그 외 국가는 2001년 기준(서울파이낸스포럼)

[그림 32] Stock Market Capitalization [그림 33] 채권발행규모(단위 : 억달러)
(단위 : 백만달러)

■ 금융업체 진출현황 및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외국기업의 수

- 다국적 금융기업은 홍콩이 가장 많으며, 동경과 북경이 뒤를 잇고 있는데, RHQ의 경우 홍콩에 가장 많이 위치함
-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외국기업의 수는 싱가포르가 경쟁도시들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으며, 그 다음으로 동경과 홍콩이 뒤를 잇고 있음. 서울과 상해의 증권 거래소에 상장된 외국기업은 전무한 실정임



출처 : NRI 조사, World Federation of Exchanges(<http://www.world-exchanges.org/WFE/home.Asp>)

[그림 34] 각 도시에 진출한 다국적 금융기업 수 [그림 35]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외국기업 수

■ 기관투자자의 금융자산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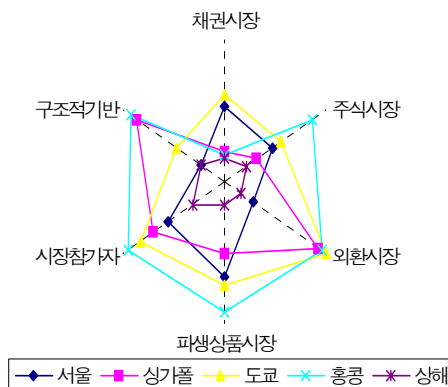
- 기관투자자의 금융자산 규모는 일본이 가장 크며, 국내 기관투자자의 금융자산은 일본의 1/17 수준임

[표 6] 기관투자자의 금융자산(2000)

국가	액수(단위:억달러)	비 고
한국	2,965	주* : Life Insurers' Assets/ Liabilities와 General Insurers' Assets /Liabilities의 합 출처 : OECD Institutional Investors Statistical Yearbook 2001,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중국	66	
홍콩	-	
일본	50,398	
싱가폴	256*	

■ 금융시장의 발전정도

- 서울은 동경에 비해 금융시장 발전정도의 모든 면에서 뒤떨어지며, 특히 구조적 기반 및 외환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많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서울이 비교적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분야는 채권시장으로, 동경을 제외한 타 지역의 금융시장을 압도하고 있음. 상해의 경우 아직 금융시장의 발전이 미진하여 홍콩의 기능을 대체할 만큼 성장하기에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 * 각 분야를 구성하는 항목
- 채권시장 : 자국정부, 국내기업, 외국정부, 외국기업
- 주식시장 : 국내대기업, 국내중소기업, 국제대기업, 국제중소기업
- 외환시장 : 자국통화, 이종통화, 국내매매자, 국제매매자, 세계와의 연계, 외환 스왑 및 헷지
- 파생상품시장 : 은행, 보험회사, 자산운영가, 증권사, 투자은행, 금융관련 서비스 업체
- 시장참가자 : 은행, 보험회사, 자산운영가, 증권사, 투자은행, 금융관련 서비스 업체
- 구조적 기반 : 거래인프라, 투명성, 금융기법, 전문성, 규제구조, 법체계

출처 : 서울파이낸스 포럼자료를 NRI가 재구성

[그림 36] 금융시장의 발전정도 (가능한 최고와 비교한 발전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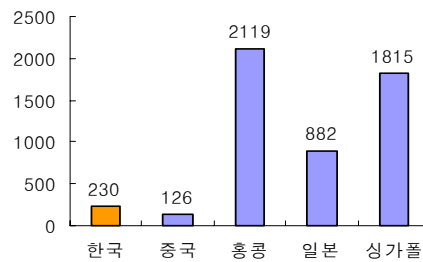
■ 재무전문가 Pool

- 금융센터가 되는데 필요한 인적 자원은 싱가포르와 홍콩이 가장 큰 경쟁력을, 일본과 한국이 중간그룹을 형성하고 있음. 금융전문가 Pool을 평가하는 또 하나의 지표라 할 수 있는 CFA 취득자 수도, 역시 홍콩과 싱가포르의 경쟁력이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남

[표 7] 인적자원 관련 경쟁력순위 관련 서베이 결과(2003년)

국가	재무전문가 Pool
한국	5.306
중국	4.566
홍콩	7.364
일본	5.390
싱가폴	7.813

출처 : IM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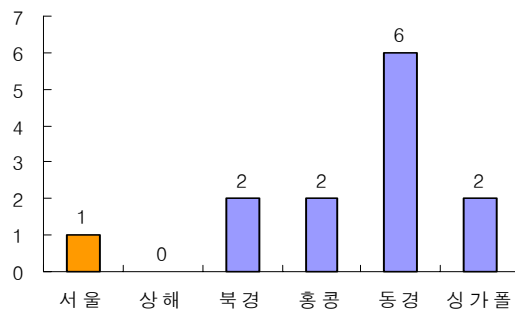


출처 : AIMR(한국의 경우 ksip.or.kr)

[그림 37] CFA 취득자 수(누적, 명, 03.8기준)

■ 국제금융기구의 수

- 주요 국제금융기구의 입지 역시 금융센터로 성장하기 위한 조건 중 하나이지만, 동경에 가장 많은 기관이 진출해 있으며, 서울에는 IFC 사무실만이 위치한 실정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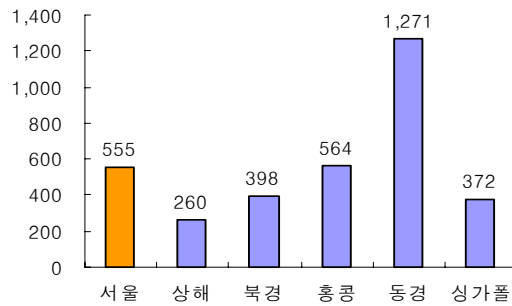
주 : 주요 국제금융기관 ADB, BIS, IFC, IMF, ISDA, MIGA, Worldbank

출처 : 각 금융기관 홈페이지

[그림 38] 주요 국제금융기관의 진출현황

■ 도시 주요 지점별 사무실 임대료

- 사무실 임대료는 비교대상 도시 중 동경(평방미터 당 1271달러)이 가장 높고, 서울(평방미터당 555달러)은 홍콩(평방미터당 564달러)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가장 경쟁력이 있는 곳은 상해(평방미터당 260달러)로, 동경의 1/5, 서울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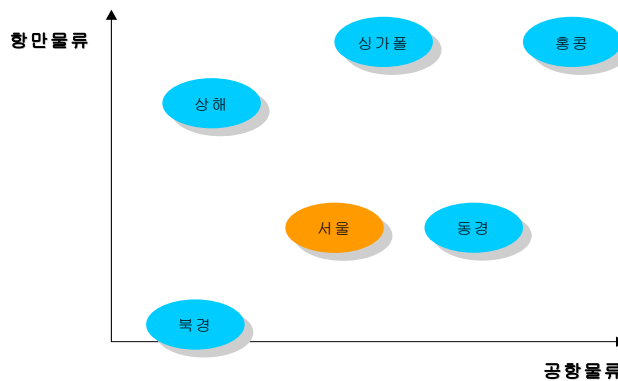


출처 : CB Richard Ellis

[그림 39] Global 50 Index (By Occupation Cost US\$/Sq.m./Annum)

동북아시아의 물류중심지는?

- 항만물류와 공항물류 모두 홍콩이 가장 앞서는 것으로 나타남. 서울의 경우 인근 인천공항의 경쟁력은 큰 편이나, 주항만과의 거리가 멀어 항만을 중심으로 한 허브가 되기에는 부족함



[그림 40] 동아시아 지역 각 도시의 물류 중심지로서의 경쟁력 MA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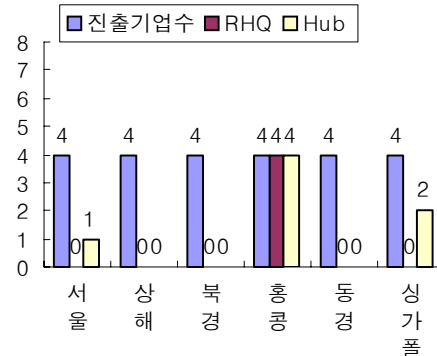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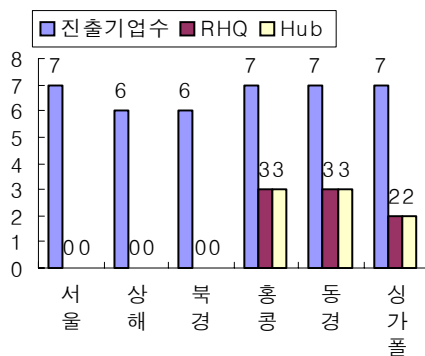
[표 8] 물류경쟁력 평가

분류		서울	상해	북경	홍콩	동경	싱가폴
항만 물류	항만물류 처리규모	○	○	-	◎	△	◎
	항만 접근성	△	◎	-	◎	○	◎
공항 물류	공항물류 처리규모	○	△	△	◎	◎	○
	공항 이용객수	△	×	×	◎	○	○

◎ 매우 경쟁력이 있음, ○ 어느정도 경쟁력이 있음, △ 보통임, × 경쟁력 없음

■ 아시아의 물류중심지

- 대형 항공사 7사 및 대형 운송회사 4사의 아시아 각 도시별 진출현황을 보면, 동남아시아에서는 홍콩과 싱가포르, 동북아 쪽에서는 동경이 지역물류 및 운송의 중심지로 나타남



주1. 대형항공회사 : Air France, British Air, Luft Hansa, KLM, Delta, United Air Northwe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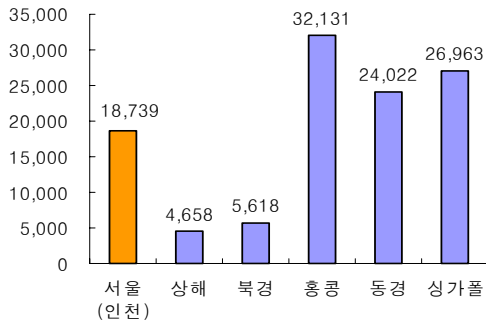
주2. 대형물류회사 : Fedex, UPS, TNT, DHL

[그림 41] 주요 대형항공회사 7사의 도시별 진출현황(국적기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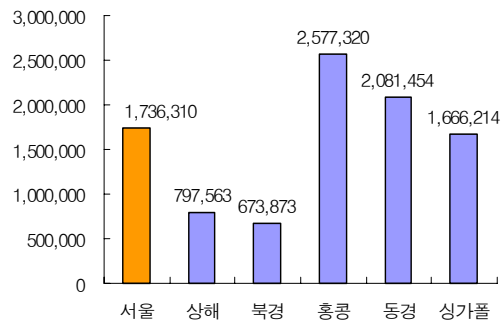
[그림 42] 주요 대형 물류회사(4사)의 도시별 진출현황

■ 국제선 승객 및 공항 화물처리규모

- 공항 국제선 승객수는 홍콩, 싱가포르, 동경의 이용수가 절대적으로 많고, 공항 화물처리규모로는 홍콩과 동경에 이어 세번째로 많은 물동량을 처리하고 있음. 서울은 항공물류 허브로서의 실질적인 경쟁상대인 동경에 비해서는 열세이나, 상해보다는 우위를 점하고 있음



출처 : Airport handbook, 칸사이 공항 조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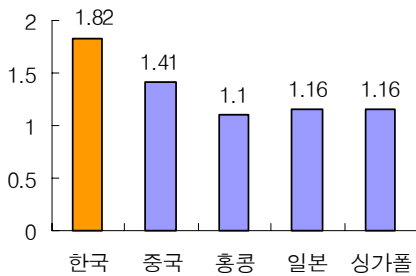
출처 : WWW.airports.org

[그림 43] 인근공항 국제선 승객수(연간), 2000년 기준

[그림 44] 공항화물 처리규모(단위: 톤, 2003)

■ 물류비용

- 전반적인 수입관련(물류) 비용을 나타내는 CIF/FOB 비율에서 한국은 1.8로, 다른 경쟁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비용 구조를 가지고 있음



[그림 45] CIF/FOB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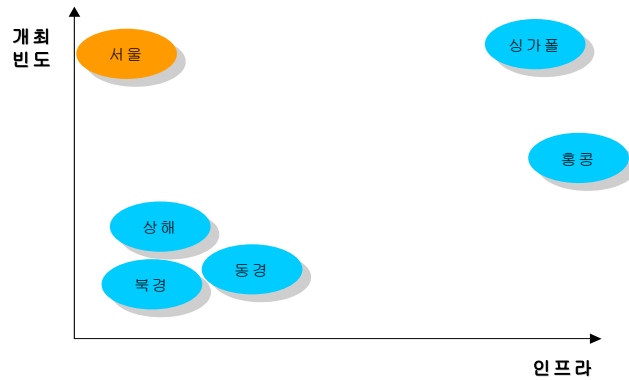
[표 9] GDP 대비 국가물류비 비율

	물류비 비율	출처
한국 (01)	12.4%	건설교통부
중국 (00)	20.0%	Civic-exchange.org
일본 (97)	9.6%	건설교통부

출처 : World Bank

동북아시아 컨벤션중심지는?

- 서울은 아시아 지역에서 싱가포르와 함께 컨벤션 중심지로 급격하게 부상하고 있음. 그러나 개최빈도에 있어서는 아시아 2번째로 급신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인프라는 가장 열악한 것으로 나타남. 단기적인 정책적 효과가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 컨벤션 중심지가 되기 위해서는 컨벤션 인프라의 확충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



[그림 46] 동아시아 지역 각 도시의 컨벤션중심지로서의 경쟁력 MA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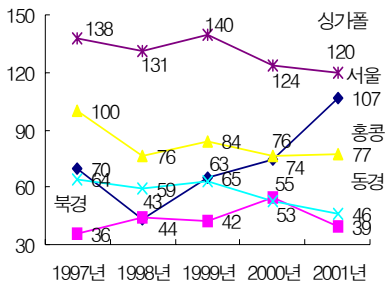
[표 10] 컨벤션경쟁력 평가

분류		서울	상해	북경	홍콩	동경	싱가폴
개최빈도	컨벤션 개최회수	◎	-	△	○	△	◎
인프라	Congress organizer	×	×	×	◎	×	◎
	동시통역자 수	△	△	○	△	△	△
	특급호텔수	×	△	×	◎	○	○

◎ 매우 경쟁력이 있음, ○ 어느정도 경쟁력이 있음, △ 보통임, × 경쟁력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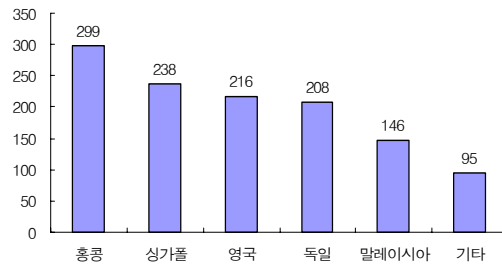
■ 컨벤션 개최빈도와 Professional Congress Organizer의 수

- 2001년 컨벤션 개최에 있어 서울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신장폭을 보인 도시 중 하나로, 아시아 지역의 전체 컨벤션 횟수가 줄어드는 경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큰 폭의 신장세를 보임
- 한국에는 전문적인 국제회의 Organizer가 절대적으로 부족함. ICCA에 등록되어 있는 국제 Meeting Planner의 수를 살펴보면, 등록자의 19%가 홍콩, 15%가 싱가포르에 있는 데 비해, 서울에는 거의 전무한 것으로 파악됨



출처 : Union of International Associations, 2001

[그림 47] 국제 Convention 개최회수 (1997~2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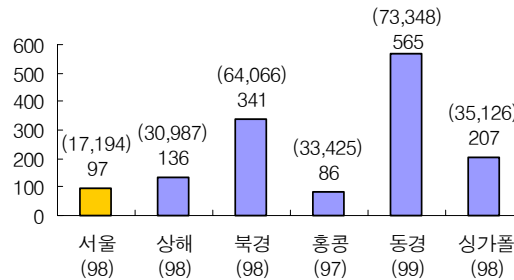


출처: icca(<http://www.iccaworld.com/Downloads/ICCADATA/Corpdata/corporate2003.pdf>)

[그림 48] Meeting Planners 보유국가 상위 5개의 ICAA 등록자수 (명, 총 등록자수 1,590명)

■ 호텔의 수(특급, 비즈니스 포함)

- 숙박시설은 컨벤션 참가자뿐만 아니라, 컨벤션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진 관광산업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인프라이지만, 서울은 경쟁도시 중 숙박시설이 가장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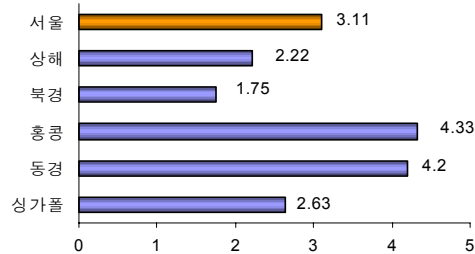
출처 : 동경도정책보도실, '경쟁하는 아시아의 도시'

[그림 49] 호텔 수 및 객실 수

■ 쇼핑의 매력

- 컨벤션 중심지가 되기 위해서는 쇼핑과 같은 관광자원이 중요한 경쟁력이 되는데, 서울의 경우 북경, 상해, 싱가포르보다는 쇼핑의 매력이 있는 편이지만, 평점은 3.11로 보통 수준에 머물고 있음. 쇼핑에 강점이 있는

도시로는 전도시가 면세점인 홍콩과, 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브랜드 샵이 들어서 있는 동경이 수위를 다투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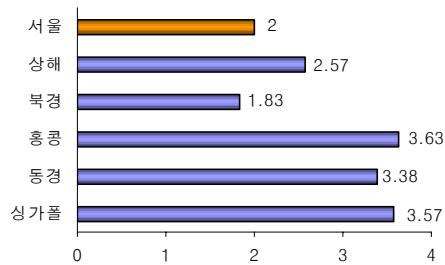


출처 : NRI 내부 서베이

[그림 50] 쇼핑의 매력 (1: 전혀없음, 5: 매우 큼)

■ International Community(China Town 등)의 활성화정도

- 서울은 China Town과 같은 International Community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도시임. 홍콩, 싱가포르, 동경 등, 이미 국제화가 이루어진 도시는 물론, 중국의 상해에 비해서도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평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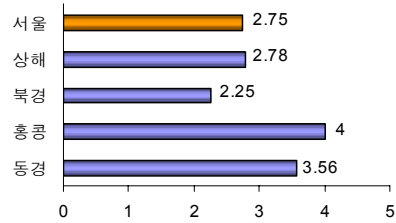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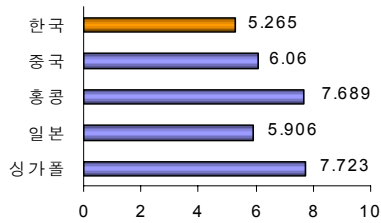


출처 : NRI 내부 서베이

[그림 51] International Community 활성화정도(1: 전혀 활성화 안됨, 5: 매우 활성화됨)

■ 외국문화 개방도(외국영화, TV방송, 책, 음악 등의 수입에 대한 규제 등)

- 서울은 외국문화에 대해서도 상당히 폐쇄적인 편으로, 북경과 비슷한 수준으로 평가됨. 서베이 결과를 고려할 때, 역시 홍콩과 싱가포르가 외국문화에 대한 개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출처 :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2003 출처: NRI 내부 서베이.

[그림 52] 국민문화가 외국의 영향에 개방되어 [그림 53] 외국문화 개방도 (1: 매우 폐
있는 정도(서베이, 1~10점, 2003) (1: 매우 폐쇄적, 5: 완전 개방)

정책적 시사점

	서울이 가진 자원		서울이 처한 환경		서울에 대한 시사
	강점	약점	기회요인	위험요인	
국제 R&D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이테크 산업을 중심으로 한 국내 대기업 경쟁력 High IT Literacy와 유행에 민감한 소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국적기업 진출 미비 R&D 인프라 미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세계적인 첨단산업 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경을 중심으로 한 경쟁도시의 R&D 중심도시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보통신관련 Global Leadership을 가지고 있는 국내 기업들이 주도하고, 국내외의 관련 기업들이 참가하는 방향으로 이끌어야 함 상암 DMC지역을 R&D 중심지로 적극 육성, High IT Literacy와 유행에 민감한 서울시민을 Test Bed로 쓸 수 있도록 컨셉을 잡아야 함
국제 금융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융시장의 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국적기업 진출 미비 인적 자원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국의 성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해의 성장 홍콩과 동경의 지위 불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시 전략사업으로 금융산업 지정 직접 금융활동과 금융서비스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금융클러스터 육성 도심 : 국제금융도시의 중심기능을 수행하는 종합금융지구 조성 여의도 : 증권거래소 중심의 금융관련 서비스업 집중 강남 : 제2의 종합금융 중심지로 육성
물류 중심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천과 부산의 물류 경쟁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천과 부산까지의 접근성 다국적 기업의 생산기지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리적 이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해의 성장 항공 허브로서 동경의 지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천의 공항 경쟁력을 최대한 활용, 다국적 물류기업의 본부 유치를 우선적으로 추진 중국의 황해연안 도시들을 중점적으로 공략할 수 있도록 각 도시별 공항과의 네트워크 조성
Convention 중심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근 급증한 국내 개최 국제회의의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Organizer 부족 동시통역사 부족 특급 호텔 부족 관광자원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경과 상해의 성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Convention Organizer, 동시통역사, 호텔 등의 컨벤션 인프라 확충 홍콩, 싱가포르 같은 컨벤션 중심도시가 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전략 참고 한국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분야(IT, 인터넷 게임 등) 관련 국제적인 컨벤션을 정부 주도로 정기화

장영희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yhjang@sdi.re.kr

박은철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원

parkagfe@sdi.re.kr